

2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5735.66 (+182.92)		792.76 (+10.79)
	금리 (미국 9년)		환율 (한-달러)
	3.822 (-0.018)		1324.05 (-4.05)

17% 금리, 리볼빙 잔액 7조 돌파... ‘부익부빈익빈’ 격화

카드사 9곳, 리볼빙 잔액 527억 증가
고물가에 취약계층 상환여력 악화
가계대출 관리로 카드로는 감소세
대출 성격 아닌 리볼빙, 관리 어려워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리볼빙(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식) 잔액이 지난달 7조원을 돌파했다.

리볼빙 잔액이 7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경기 양극화로 카드 대금 결제를 미루는 금융 취약계층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카드로, 현금서비스 등 대출성 상품 잔액은 감소했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사 9곳(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9월 말 리볼빙 이월 잔액은 7조52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 대비 527억원 증가했다.

리볼빙은 당장의 카드 연체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활용되지만, 카드로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데다 고객이 직접 해지하지 않는 한 약정이 계속 유지돼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리볼빙 잔액이 7조원을 넘어선 것은 1년 7개월 만이다. 지난해 2월 7조613억원을 기록한 이후 6조원대에 머물렀던 리볼빙 잔액은 올해 3월을 기점으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달 다시 7조원대로 올라섰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 리볼빙 잔액이 전월 대비 250억8300만원 늘면서 증가폭

이 가장 컸다. 우리카드(+105억1100만원), 신한카드(+89억4000만원), 삼성카드(+81억3400만원), 롯데카드(+35억6700만원), 비씨카드(+95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KB국민카드(-23억6700만원), NH농협카드(-6억6900만원), 하나카드(-5억9000만원)는 감소세를 보였다.

리볼빙 증가 배경으로는 경기 양극화에 따른 취약계층 상환 여력 악화가 꼽힌다.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지속되면서 소득만으로 카드 결제대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당장의 연체를 피하기 위해 리볼빙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금리다. 지난달 NH농협카드를 제외한 국내 카드사 8곳의 리볼빙 평균 금리는 17.33%다. 카드로 평균 금리(13.55%)와 비교하면 3.78%포인트(p) 높다.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보다 값싼 것을 미루는데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셈이다. 저신용자 부담은 더 크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리볼빙 금리는 18.99%로, 법정 최고 금리(연 20%)에 육박한다.

한편, 카드로 잔액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6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카드로 잔액은 42조3404억원이다. 전달 대비 3448억원 감소했다.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6172억원으로, 같은 기간 2867억원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가 넘어간다고는 하지만 아직 경기 양극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포럼 성료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포럼 ‘노화를 되돌리다: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의 주제로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역노화 패러다임 전환기

에서 국내 바이오 기업, 연구진이 확보해야 할 핵심 경쟁력을 통해 상용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규춘 기자

화가 심하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어려운 사람은 어렵다 보니 리볼빙 잔액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카드로·현금서비스 등 대출 상품의 경우 연체 채권이나 부실 채권이 발생하면 카드사들이 분기 말 채권을 상각하면서 잔액을 조절하는데, 리볼빙은 대출 성격이 아니라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잔액이 오르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이달 누적수출 616억 弗 ‘역대최대 실적’

관세청, 20일까지 수출 105% 증가
반도체 수출 275억 弗, 222.5% ↑
국가별로 中 154%, 美 155% 늘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0% 이상 증가했다. 10월 1~20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의 실적이다. 반도체 수출은 무려 20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0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616억 1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5.4% 늘었다.

이는 10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2021년 10월의 종전 최대기록(343억 달러)을 갈아 치웠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47억4000만달러로 전년동기(28억6000만 달러)보다 65.9%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반도체가 이번에도 수출 호조를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275억 16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2.5% 급증했다. 10월 1~20일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보다 16.2%포인트 상승한 44.7%에 달했다.

수출 품목 전반에 걸쳐 증가세를 보였다.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24억 3200만달러로 424.0%나 급증했다. 이밖에 석유제품(68.3%), 승용차(40.9%), 자동차부품(40.4%), 선박(6.9%) 등에서 수출이 늘었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뉴스시스

국가별로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났다. 중국 시장 수출은 166억8600만달러로 154.4% 증가했다. 미국시장 수출도 107억7800만달러로 154.9% 늘었다.

베트남 수출은 50억1100만달러로 74.6% 증가했고 유럽연합(EU)은 44억 6300만달러로 78.2% 늘었다. 대만(36.7%), 일본(54.9%), 인도(89.5%) 등 주요 시장에서도 수출이 확대됐다. 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 상위 3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7%에 달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471억17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2.8% 늘었다. 반도체 수입이 75억7300만달러로 78.4% 늘었고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은 18억4700만달러로 93.4%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액도 크게 늘었다. 원유 수입은 74억 4800만달러로 42.9%, 가스 수입은 28억2000만달러로 112.4% 증가했다.

수출이 수입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144억96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반도체 상승 베팅... 서학개미, 밤 잠 설친다

반도체 수익률 3배 추종 ETF ‘속슬’
36억 弗 순매수 1위... 수익률 -34%
韓 증시 3배 추종 ‘코루’ 순매수 2위

30대 직장인 김씨는 요즘 스마트폰 증권 앱으로 미국 주식시장을 확인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다. 미국 인공지능(AI) 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뉴스에 이달 초 ‘속슬’(DIREXION DAILY SEMI CONDUCTORS BULL 3X SHSETF)을 사면서다. 이 상품은 미국 팔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한다. 김씨는 “반도체 주가 올라서 큰돈을 벌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라며 “시장보다 앞서 판단해 3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게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올가을 잠 못 드는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늘고 있다.

과감히 ‘반도체 상승’에 베팅했다가 손실을 보고 있어서다. 일부 과감한 개미는 2배 베팅도 부족해 수익률 3배 상품으로 몰려들고 있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은 46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9월 전체 순매수액인 10억128만달러보다 약 4.5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서학개미의 순매수 상위 2개 종목은 지수 움직임에 따라 3배 수익률이 결정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다.

서학개미들이 이 기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주식은 ‘속슬’(SOXL)이다. 반도체 지수 하루 수익률의 3배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순매수 금액이 36억2313만달러에 달한다. 순매수 2위인 ‘코루’(DIREXIO

N SHARES ETF TRUST DAILY MSCI SOUTH KOREA BULL)도 2억8874만달러어치 사들였다. ‘코루’는 국내 증시를 3배로 추종한다.

이 외에도 서학 개미들은 같은 기간 나스닥 100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 QQQ ETF’(QLD)에 1억640만달러, 나스닥 100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TQQQ)에 8949만달러 순매수했다.

베팅은 과감했지만, 수익률은 시원치 않았다. ‘속슬’은 이달 들어 34.02% 폭락했다. ‘코루’는 43.36% 하락했다. ‘QLD’와 ‘TQQQ’수익률도 각각 -6.39%, -9.76%를 기록했다.

〈2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메트로 한줄뉴스

- ▲ 선관위 직원 조사 후 사망에...특검, 중수청장 예방 연기
- ▲ 與, 정무위서 吳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비판...野, 秋 ‘소방 뺑다’ 구설 공세



- ▲ 권익위원장, 제주공항 지연 사태에 “신고 들어 온다면 면밀히 수사”
- ▲ 김정은 ‘뇌출혈 사망’ 소문 이어 ‘대역 의혹’까지...가짜뉴스 파장

- ▲ 여야, 대한체육회 국감서 ‘운영 부실’ 질타...병역 혜택 논란·징계 지연 도마
- ▲ ‘셀프 출품’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의 표명